



1995년 3월 1일 열린 BTN불교TV 개국법회 후 주요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 텔레비전입니다'이라는 첫 프로그램이 방송을 탄 이후 현재까지 영상 포교 미디어로 발전해 오고 있다.



2008년 4월 불교TV는 서초구 방배동 신사옥으로 입주하며 '서초 시대'를 연다. 이 사옥은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맞아 마련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2008년 20억원의 자본을 투입해 마련한 HD중계차를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둘러보고 시승하고 있다.



불교TV는 종교방송 최초로 디지털 파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했다.



불교TV는 불법 홍보를 위한 DVD·불서 보급에도 주력했다. 사진은 '나를 깨우는 108배'.

# TV 속 법당 20년, 100년 전법의 새 걸음 시작

## 개국 20주년 BTN불교TV 역사와 미래

"날로 혼미해져가는 세상, 인성(人性)이 불 꺼지니 백일(百日)도 어둡고 백일(百日)이 어두우니 인륜도 감 감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가슴 속에 더 많은 법당을 지어야 합니다. 불교 텔레비전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前조계종 총정 월하스님, BTN불교TV 개국 법어중〉

"우리는 BTN불교TV를 통해 부처님과 만나고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사바세계에 영원한 자유와 평화, 균형과 조화가 증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경건하게 다짐합니다."

〈BTN불교TV 개국 선언문〉

불기 2539년, 서기 1995년 3월 1일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불교TV)가 문을 열었다. 이는 '세계 최초 불교 전문 TV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한국과 세계 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일이었다.

불교TV는 오는 3월 1일로서 개국 20주년을 맞는다. 2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에 전한다는 사명 아래 한국 최대의 영상 법당으로서 최선을 역할 하고자 노력했던 불교TV는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종합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개국과 고난 그리고 발전

불교TV는 1994년 4월 통도사 주지였던 태응 스님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개국준비에 들어갔다. 개국준비를 위해 방송기자재를 발주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충원하는 한편 개국 프로그램 제작을 서둘렀다. 총 자본금을 140억 원으로 늘려 사업을 위한 재무 능력도 갖췄다.

1995년 3월 1일 개국 고불식 '안녕하십니까, 불교 텔레비전입니다'를 첫 방송으로 불교TV의 역사가 시작됐다.

불교TV의 최초 사옥은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금호전기 빌딩(1994년 6월~2003년 3월까지 입주)이었다. 처음에는 처음 1층과 7층, 2개 층만 사용하다가 10층과 지하층까지 4개 층으로 늘렸고 직원도 140명으로 확충했다.

하지만 곧 어려움이 닥쳤다. 바로 한국 사회를 뒤흔든 1997년 IMF사태다. IMF 한파에 불교TV는 빌딩 4개 층에서 밀려나 결국 지하 1층을 쓰게 됐고, 급기야 방송 중단 사태를 맞기도 했다.

2000년 6월 성수스님이 회장으로 취임한 후 불교TV는 긴축 재정에 들어간다. 그 결과 1년 만에 112억 원이 넘는 부채가 40억 원대로 줄었다. 불교TV는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옥 마련에 나섰다. 당시 마련된 것이 봉천동 사옥(2003년 3월~2008년 3월 입주)으로 연건평 1250평(4,132㎡)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였다. 1층에 무상사, 2층은 사무실, 3층은 스튜디오, 4층은 주조정실과 편집실, 불교TV문화원이 들어섰다.

재정 내실화에 나선 불교TV는 2008년 4월 서초구 방배동에 사옥을 마련하고 '서초 시대'를 연다. 현재의 사옥은 지상 9층, 지하 4층, 연건평 7051.8㎡로 지상 1층에는 400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160평(529㎡) 규모의 무상사가 있고, 2층에는 시민선방, 3~8층에는 스튜디오와 종합편집실, 주조정실, 편집실, 제작국 등 방송본부가 마련돼 있다. 방배동 사옥 이전 사옥과는 달리 디지털 방송시대를 대비하며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 영상 법문부터 교양·다큐까지

불교TV 개국은 영상 법문부터 불교 문화 관련 교

양, 다큐멘터리 등을 항상 TV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데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불교TV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양성했고, 20년 동안 방송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편수만 65,000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국내외 방송·필름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작품도 상당수다. 이는 불교 전문 방송콘텐츠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총 100편에 이르는 '한국의 명찰'이 제작 완료돼 '고려대장경', '발우공양'과 함께 일본과 대만으로 수출됐다. 보리방송문화상 수상작품인 '출가 새로운 탄상', '지장보살', '자비의 천수천안' 등도 불교TV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티벳 영혼의 선율'은 2010 세계 음악·독립영화제 월드 뮤직 앤드 인디펜던트 필름 페스티벌에서 5개 부문 노미네이트 돼, 최우수 독립영화 음악부문과 최우수 영화음악상을 수상했다. '암흑속에 핀 화엄불국도, 초월의 일심교'는 2013년 불교 언론포 화상 TV부문 우수상을, 사찰음식 및 발우공양에 대한 다큐멘터리 '북다의 식사(食思)'는 지난해 불교언론 문화상 TV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방에서 TV와 인터넷으로 손안에서 모바일로 자유롭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의 법문들을 365일 24시간 시청 할 수 있다는 것도 불교TV만의 강점이다. 불교TV 무상사 일요일법회는 최장수 프로그램이자 인기 프로그램의 하나로 매주 원로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법석을 열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매주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또한 역대 고승들의 일상과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스님들의 행장을 영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영상으로 '불교 한류' 선도

한국의 전체 문화유산의 70%가 불교문화유산인 만큼 이에 대한 디지털영상 콘텐츠 제작은 곧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었다. 불교TV는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의 하나인 경주 남산을 재조명한 '천년의 기다림 경주 남산(2012)', 선조들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마애불에 대해 각종 최신촬영기법과 CG를 동원해 영상으로 복원한 '1600년 한국불교의 기록 마애불(201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의 모든 것을 담은 '영산재(2009)' 등을 제작했다. 이외에도 '한복선의 한국전통음식(2006)', '감성식객, 자연을 먹는 법(2011)', '불영사 사찰음식 문화향연(2013)' 등을 제작해 한식문화의 우수한 건강성을 홍보하고 북미지역으로의 방송 송출을 통해 한식의 세계화에도 기여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불교TV는 해외 송출을 통한 시청 영역 확대에도 나섰다. 1996년 3월 BTN불교TV는 미국 ATW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시청 영역을 미국으로 확장시켰다. 이어 1997년 미주지사를 설립하고 2001년 아이스카 이컴과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내 영상포교 활동을 더욱 진일보한 형태로 발전시켰으며 이후 미국 전역에 24시간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2014년에는 뉴질랜드 HiTV Limited IPTV와의 프로그램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해 뉴질랜드 지역에도 한국불교를 만날 수 있게 했다.

### 불교 역사 현장 생생히

불교TV는 2008년 20억원을 투자해 HD 카메라를 탑재하고 디지털 오디오와 위성 네트워크 시스템



영상 포교 시대를 연 불교TV는 불교 현대사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연등회 연등축제 제작 현장.

### 1995년 3월 1일 개국 고불식

영상 법문·문화·교양·다큐 등

20년 간 6만여 프로그램 제작

불법홍포·불교문화 진흥 앞장

스마트라디오·아카이브 시스템 등

종교방송 트렌드 선두주자 나서

오는 3월 7일 개국 20년 기념 법회

4대 목표 발표·축하 공연 등 진행

개국 기념 정목 스님 토크 콘서트

4월까지 전국 4차례 순회 공개방송

을 갖춘 HD중계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매년 연등축제 생방송을 비롯한 대법회와 사찰의 문화공연 현장을 담아, 다채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2010년 3월 13일 불교TV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된 법정 스님 다비식 생방송 현장중계는 불교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쏟아진 감사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와 함께 불교TV는 불교전통문화를 영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꾸준한 사회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여 시청자들의 즉석질문에 대해 스님들과 고민을 나누고 명쾌한 해답을 듣는 '4인4색 즉문즉설(2013~현재)', 젊은 리더들의 진솔한 스토리를 들어보는 'BTN TV 멘토링, 소감(2014)', 스님끼리 듣는 세상이야기 '세상을 보는 눈, 천안홍(2013)', '일각 스님의 내비뷰 콘서트(2013)'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 종교방송 선두주자로 나서다

위성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IPTV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무한경쟁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TV는 2008년 서초구 방배동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모든 시스템을 HD로 구축해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처했다. 지난해에는 종교방송 최초로 모든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 방송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 완료했다. 이는 우수한 불교영상콘텐츠를 고품질로 영구보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불교TV가 IT와 접목한 시초는 2008년 4월 KT와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였다. 불교TV가 가진 풍부한 불교 콘텐츠를 KT와 연계해 '내 손안의 법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모바일 웹페이지(m.btn.co.kr)를 오픈해 불교계 방송사 최초로 스마트폰 실시간방송을 가능케 했다. 이와 같은 시기 웹TV 서비스도 제공하여 TV, PC,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3스크린 방송시대를 구현해냈다.

2011년 법문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마트폰으로 보는 BTN NEWS 사이트도 오픈했다. 이후 BTN 및 BTNNEWS 안드로이드 앱 오픈과 페이스북·네이버 블로그·카카오톡에서도 불교TV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2015년 3월 1일 정식 개국을 앞둔 BTN라디오 '울림'을 통해 앞으로 불교TV는 영상포교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는 스마트 음성포교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BTN 라디오 '울림'은 법문,염불독경, 찬불가, 명상 등 총 4개의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1월부터 시범방송을 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불교TV는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과 해외 고승 초청 법회, DVD보급과 출판사업을 통해 불교포교와 사회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또한 조계종 공식 지정 상호 서비스인 (사)불국토 상호와 사찰 음식 전문 판매처인 (사)산사예, 1서1책맞기운동을 전개하는 (사)도시와 농어촌, 한국 전통문화 기록 보존 사업을 추진하는 (사)전통문화콘텐츠개발 등을 통해 자체 수익과 공익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 100년의 걸음을 내딛다

개국 20주년, 성년이 된 불교TV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20년의 인연, 100년의 약속'을 정했다. 20년으로 이어진 스님과 불자들의 인연과 성원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사부대중과 진정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불교TV는 개국 20주년 행사로 인기프로그램 '정목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를 광주, 부산, 대구, 대전 4개 도시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나라 라는 대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4대 도시 투어 공개방송은 2월 26일 오후 3시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첫 번째 만남을 시작으로 3월 4일 부산 문화회관, 4월 3일 대구학생문화센터, 4월 23일 대전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공개방송은 4개 도시별로 토크 주제를 다르게 선정하고, 토크주제에 따른 정목스님의 법문과 기도, 발원으로 이뤄진다. 특히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연주자들을 초청해 음악과 함께 하는 것도 큰 볼거리다.

공개방송에 대해 불교TV는 "지난 20년 동안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스님과 불자, 시청자들에 대한 작은 선정하고, 토크주제에 따른 정목스님의 법문과 기도, 발원으로 이뤄진다. 특히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연주자들을 초청해 음악과 함께 하는 것도 큰 볼거리다."

오는 3월 7일에는 불교TV 개국 20주년 법회를 연다.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기념법회에서는 'BTN불교TV의 미래비전 4대 전략목표'와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발표되며 중국 천수관음무,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 등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으로 꾸며진다.

불교TV는 "이날 법회에서는 '20년의 인연, 100년의 약속' 슬로건에 맞춰 변경되는 CI와 불교 종합미디어로서 발돋움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 같은 목표 안에에 시대에 맞는 신행문화선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Well-Life' 불교 공동체 구성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BTN불교TV 역대 주요프로그램



### 불교TV무상사 일요초청법회 (2006. 8~ 현재)

'TV속 법당' 취지에 맞는 불교TV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1층 무상사에서 매 주 각계 원로 대덕 스님들의 법문을 만날 수 있으며, 이를 녹화해 매주 방송하고 있다.

### 생방송 보시(2013. 1. 2~ 현재)

기부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소개하고 불교TV자원봉사 의료진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희망을 주는 공익적 성격이 짙다.

### 한국의 명찰 (2004.10~2008. 3. 총100회)

한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한국의 사찰. 우리가 '명찰'이라 부르는 사찰의 창건과 역사, 일주문, 대웅전, 관음전, 명부전 등 가람배치, 불상과 석탑 등 주요 문화유적, 건축양식 등을 자세하게 알아본 회기적 프로그램이었다.

### 산중대담 들앞의 잔나무 (1996. 3~1999.12. 총74회)

굴곡의 근현대사를 살아간 고승들의 삶과 수행을 대담형식으로 풀어낸 토크 프로그램. 고승들의 감로수와 같은 법문이 들어 있으며, 한국불교사 구술자료로도 높은 가치를 가진다.



### 어머니 나의 어머니 (2009. 4~ 2012. 4. 총138회)

명사들을 초청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며 어머니의 잊혀진 인생과 어린 시절의 꿈, 그리고 희생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

### 진미령의 맛있는 절밥 (2009.12~2013.10. 총200회)

음식, 자연과 인간, 수행의 의미를 요리를 통해 배워본다. 불가의 전통음식문화를 조명해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